

조선전쟁도발자 미제의 음흉한 정체는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우리 조선사람들이 처음으로 미국인들을 알게 된것은 1855년 6월 강원도 통천알바다에서였다고 한다. 당시 우리 어민들은 풍랑을 만나 생사기로운 놓인 미국인 4명을 이 알바다에서 구원해주었다. 국적도 이름도 전혀 알수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서양인들을 구원한 우리 인민들은 동방례의 지국의 인도주의적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대해주면서 청나라까지 데려다주었다. 청나라에 가서야 우리 사람들은 이 4명의 조선자들이 다름아닌 미국사람이라는 것과 이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때 통천알바다에서 구원된 4명의 미국사람들이 다름아닌 우리 나라를 탐탐하러던 침략의 첫 척후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당항 미국인들은 동정을 자아내는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들을 따듯이 대해주고 그 나라로 돌려보낸 조선사람들은 그야말로 선량하고 착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미국정부에서는 마땅히 회생을 무릅쓰고 자기 주민들을 구원해준 우리 인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처사인것이요. 하지만 배은망덕하기 그지없는 이 서양오랑캐들은 그 은혜를 갚을 대신 오히려 우리 나라에 침략의 검은 발길을 틀어놓았다. 북벌섯발에서 장미꽃이 피여날수 없다는것이 아마 미국을 두고 하는 말인것 같다.

1866년에 《서면》호의 침입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언제 한번 따뜻한 악수를 청해본적이 없으며 매일 매 시각 침략의 기회만을 노려왔다.

조선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어느덧 6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전쟁의 참화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대들이 북과 남,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겨레 총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고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도 삼천리강토요 전쟁의 불을 지르고 조선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씌운 침략자 미제의 범죄적 만행을 우리 어찌 한시인들 잊을수 있으며 덮어버릴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역적무리들은 지난 조선전쟁을 놓고 북조선이 남조선을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먼저 공격하였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선전을 집요하게 류포시켜 침략력사를 외곡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력사는 결코 위조할수도 외곡할수도 없으며 부정할수도 없다.

나는 조선전쟁의 증견자, 해외동포 1세의 한사람으로서 새세대동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잊지말아야 할 력사의 진실을 다시금 새겨주는것이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전쟁은 미제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목적의식적으로 도발감행한 범죄적인 침략전쟁이었다.

조선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오던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온갖 전모술수와 강도적방법으로 남조선을 강점하였다.

《조선은 아시아라는 고기덩어리를 잘라내는 《단검》이다.》라고 한 당시 미국무장관 딜레스의 떠벌입은 미제가 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군사적전초기지로 얼마나 중요시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본다.

남조선에서 3년간의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미제는 리승만을 두목으로 하는 괴뢰정권을 조작하였으며 《국방경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여 1950년 6월에는 무려 20만명의 침략무력을 증강함으로써 전쟁준비에 박

차를 가하였다.

미국도서 《아메리카 현대사》에는 《미국이 5억US\$를 들여 장미시킨 남조선군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라고 적여져있다.

1950년 6월 17일 트루멘의 특사로 남조선에 기여든 흉악한 전범자 딜레스는 38° 선지역까지 찾아가 저들이 그처럼 발광적으로 다그쳐온 《북벌》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비준하였으며 리승만 괴뢰들을 모아놓고 6월 25일을 기하여 《북진》을 개시할것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지령하였다.

《...내가 본바에 의하면 모든것이 만족스럽다. 이제는 우리의 수확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지금 매우 흥분되어있다. 준비가 된 이상에는 하루라도 빠르면 빠른수록 좋다. ... 만약 2주일만 건디언이라면 이 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시하여 유언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투쟁공공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

6월 21일 딜레스와 미래평양사령관 맥아더, 미국방장관 존슨, 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랫틀리가 도쿄 《4자회담》에서 작성한 군사작방안들은 그후 미제의 전쟁우두머리인 트루멘에 의하여 정식 비준되었다.

자투수의 송곳은 갈수록 깊어진다. 이 거것은 어느때든지 폭로되기 마련이다.

당시 미제침략군 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리승만역도에게 6월 25일을 《북진》개시날자로 정해주면서 《우리가 왜 25일을 택하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심중한 의도가 있다.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리스도교국가인 미국이나 《한국》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했다는것을 믿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았다는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뇌거렸다.

당시 남조선의 외무부장관 림병직은 1953년 10월 《우리들의 목적은 리승만의 밑에 조선을 통일하는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전쟁을 시작한것이다.》라고 떠벌이였으며 괴뢰해군참모총장이었던 리룡운도 《전쟁은 사실 우리들에 의하여 남조선으로 부터의 도발로써 시작하였다.》라고 실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먼저 공격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거짓선전을 국제사회에 류포시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하여금 16개의 국가군대들로 무어진 유엔군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조선전쟁에 들이밀게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3년간의 전쟁에 방대한 병력과 군수물자를 탕진하면서 창건된지 두해밖에 안되는 청소환 우리 공화국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보려고 미쳐 날뛰었지만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세계면전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대참패를 당하게 되었다.

조선전쟁은 미제가 리승만괴뢰정권의 붕괴를 모면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도발한 일종의 정치적 및 군사적모략극이었다.

외세에 의한 국도량단과 민족분열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48년 4월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회의를 직접 소집하시고 지도하시었다.

해방후 그처럼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극소수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지어는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다 참가한 남북련석회의에서는 통일이념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전조선적인 통일적

중앙정부를 세움으로써 분열을 막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데 대하여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루하였다.

은 겨레는 민족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총결기하였고 미제에 의한 남조선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삼천리를 진감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합법성이 없는 허수아비 《단독정권》을 반대하여 대중적시위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제주도인민들의 4.3봉기와 1948년 10월 려수인민항쟁과 같은 무장봉기들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미국이 조작한 남조선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그 련쇄반응으로 미국의 식민지 지배정책이 종말을 고향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특히 리승만괴뢰도당의 정치적 위기는 1950년 5월 30일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의 대참패에 의하여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국회》의석 210석가운데서 리승만일파에게는 겨우 47석밖에 차지하지 않은 《5.30선거》의 결과는 리승만파썩토치의 종말이 가까와졌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바빠맞은 매국역적 리승만괴뢰는 살아남을 최후의 희망을 전쟁에 걸었다. 지체없이 전쟁을 일으켜 남조선인민들의 양양된 조국통일기운을 압살하고 반대파들의 반항도 짓누름으로써 《북진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밑에 출제들을 워싱턴에 급파하여 6월 10~13일경에 《정부》의 붕괴를 보고》하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신속한 원조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에는 《...경제적붕괴에 직면하고 국내의 불안과 5월의 패배후의 적대적인 <국회>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조선의 평화호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있는 사실에 직면하여 비틀거리던 리승만 <정

권》은 마지막도박을 하여 나라를 내전속에 몰아넣었다.》라고 적여져있다.

미국에게는 전반적인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완전히 뒤집어놓을수 있을만큼 급작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다.

그 큼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란 바로 전쟁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전쟁에서 미국은 무엇을 노렸는가.

그것은 우선 이미 계획했던대로 조선반도 전지역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100여년전부터 품어온 침략야욕을 실현해보려는데 있었으며 만약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북과 남사이에 전쟁을 통한 적대적갈등을 조성시켜 정통성이 없는 남조선괴뢰정권을 지탱할수 있는 심리적지반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다.

미국이 이 시기에 인위적으로 조작한 적대적갈등이 그후 장장 수십년동안 이어져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효과적으로 리용되어왔다는것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제반 력사적사실은 조선전쟁의 도발자는 다름아닌 미제이며 미국은 결코 전범자, 민족분열의 원흉으로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본질은 전쟁이다. 승남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다는것이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교훈을 망각하고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역적무리들을 사육하여 우리 조국강토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지구상에는 열점지역들이 적지 않지만 조선반도처럼 화약내질은 전쟁의 참화까지 들쉴은 불구대 천의 원수 미제침략자들과 친미사대매국역적무리들의 천추만대에 용납 못할 만고대죄악에 대해 언제나 명심하고 21세기의 선군대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침략전쟁연습으로 날과 달이 흐르는 곳은 없다.

돌이켜보면 조선전쟁으로부터 1960년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

형간첩비행기사건, 1970년대 판문점사건, 세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는 조미핵대결 등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전쟁의 개선이 따로 없다.

정전이후 오늘날까지 남조선에서 감행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과 군사훈련은 공개된것만 해도 1만 8 000차례가 훨씬 넘으며 그 규모에서 세계최대이고 내용에서 위험천만한것이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방치되고 평화가 수호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북의 무진막강한 선군의 덕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1950년대의 교훈을 망각하고 끝끝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하여 지구형성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냄으로써 민족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괴팍한 원한을 천백배로 복수하고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불을 줄기는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것이 곧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둥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우리의 모든 새세대동들이 조선민족을 돌로 갈라놓고 삼천리조국강토에 헤아릴수 없는 전쟁의 참화까지 들쉴은 불구대 천의 원수 미제침략자들과 친미사대매국역적무리들의 천추만대에 용납 못할 만고대죄악에 대해 언제나 명심하고 21세기의 선군대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침략전쟁연습으로 날과 달이 흐르는 곳은 없다.

돌이켜보면 조선전쟁으로부터 1960년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

제로씨야동도 정 일 심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답화

6.25를 계기로 괴뢰패당이 반공화국대결보락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괴뢰패당은 그 무슨 《호국행사》개최, 《참전영웅초상제》이니, 《전투기념식》이니 하며 여기에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국과 추종국가의 고용병들과 남조선의 청소반도까지 끌어다놓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광기를 악랄하게 고취하는가 하면 미국과 함께 《북공변사태》에 대비한 련합훈련》이니, 《해병대합동전투훈련》이니 하는 각종 전쟁불장난으로 북침광란을 일으키고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6.25전쟁발발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워 전쟁도발범죄를 가리우며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한것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이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 전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밑에 미제와 그 주구인 리승만당국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8.15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불법강점한 미제는 괴뢰정권과 괴뢰군을 조작하고 38° 선일대에 서의 끊임없는 무장도발로 정세를 긴

장시키며 북침전쟁도발의 구실을 찾는데 광분하였다.

미제가 조선과 만주, 씨비리점령을 노린 《A. B. C계획》을 비롯한 북침전쟁계획들을 극비밀리에 작성하고 실천에 옮겼다는것은 미국동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를 비롯한 살인장군들의 고백과 제헌자들의 증언 등 력사적사실자료들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을 야망밑에 리승만도당을 내몰아 6.25전쟁의 불을 지르게 한 다음 유엔의 이름을 비법적으로 동용하여 15개의 추종국가군대들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여 가장 야만적인 전쟁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며 지어 원자탄사용기도가치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위대한 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수호선전에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키질 수 없었으며 조선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제와 괴뢰패당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전후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

려왔다.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것도 미국이고 《덤 스피리트》, 《기 리졸브》, 《독수리》 등 각종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며 우리 공화국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절경으로 몰아간 장본인도 미제와 남조선 괴뢰패당이다.

최근 미국과 괴뢰패당은 《맞춤형 억제전략》이니, 《공동국지도발대 비계획》이니 하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각본에 따라 핵전략목표지와 핵잠수함 등 핵전쟁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북침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하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침략적인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6.25전쟁의 도발자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유린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괴뢰패당이 6.25전쟁에 대해 그 누구의 《납침》이니 뭐니 하고 생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이라는 황당한 구실밑에 반공화국대결소동과 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이야말로 정의와 력사적인

실에 대한 과렴치한 우용이고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고 도전이다.

더우기 조선전쟁에서의 참패가 너무도 망신스러워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면서 입밖에 내둘리지도 못하던자들이 그 무슨 《승리》요 뭐요 하며 《기념》하는 농을을 벌려놓고있는것은 무덤의 망두석도 못지 않을수 없는 해괴한 회비극으로서 세상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미제와 괴뢰패당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침략자, 도발자의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얻을것이란 수치스러운 참패밖에 없다.

우리 천만국민은 미제와 괴뢰패당이 력사의 쓰디쓴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를 총출발시켜 선군의 총대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미제와 괴뢰패당은 정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반공화국대결보락광란극을 당장 접어치워야 한다.

주제103(2014)년 6월 24일
평 양

미제의 야수성과 악랄성을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

신천박물관을 참관한 외국인들 격분 표시

신천박물관을 참관한 외국인의 벗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과 략탈의 원흉, 극악한 인간도살자로서의 악명을 떨친 미제의 괴비린 죄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제민주녀성선맹 위원장 마르시아 데 캄페스 베레이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 저지른 미제의 살인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너울을 쓴 승남이무리들만이 할수 있는 이 대학살만행은 천추에 대를 두고 잊지 못할 만고의 죄악이다.

조선인민에게 들쉴은 전쟁의 참화도 모자라 미제는 장장 반세기이상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조선의 절반방을 가로라고앉아 항시적인 전쟁위협과 불안을 조성하면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분렬의 고통을 주고있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이 경제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입은 피해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미국은 그야말로 이 땅속에 불행의 씨앗만을 묻고 키워온 평화의 암이다.

세계의 모든 녀성들은 이 력사의 땅 신천에 와서 미제의 치렬리는 인간살육만행을 똑바로 보고 반미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스위스조선위원회대표단 성원 패터 헤기틀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천박물관을 참관할 때마다 미군이 저지른 치렬리는 만행들에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많은 녀성과들 아이들을 무참히 죽인것이다.

미제의 집단살인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

는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것이였다.

이것만 보아도 극도의 인간중요사상에 물젖은 미제의 야수성과 악랄성을 적라라하게 알수 있다.

월남녀성동맹대표단 단장 황 티 아이 니옌은 신천박물관을 참관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미제의 야만적행위는 신천땅의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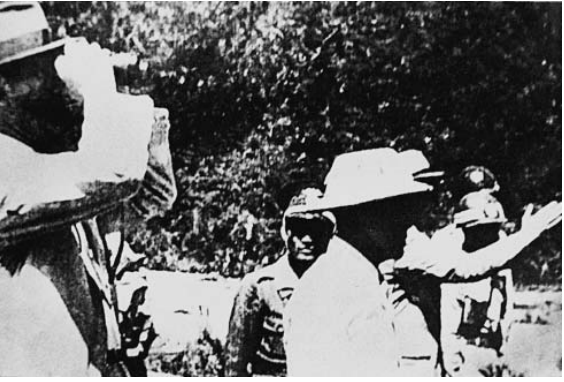
이곳에 전시된 미제의 만행자료들은 력사에 파묻힐수도 덮여버릴수도 없는 피비린 죄악의 증견물이다.

이러한 인간도살은 비단 신천땅뿐아니라 침략자 미군의 피물은 군화발이 찍히는 곳마다에서 수없이 감행되었다.

조선은 이에 대한 응당한 사회와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본시기자

사진을 통해 보는 조선전쟁도발자 미국



본시기자